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19. 9. 26.(목) 총 6매(본문4, 참고2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김성호, 사무관 최대경 ·☎ (044) 201-3755	
	마포구청 건축과		·과장 이석우, 민원2팀장 이석작 ·☎ (02) 3153-9411	
보 도 일 시		2019년 9월 2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26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·마포구·감정원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나선다 27일 마포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…건축물 안전정보 손쉽게 확인

	지금까지는	앞으로는
생활편의	·A씨는 인근 공사소음 때문에 공사현장 입구에 가서 건축허가 표지판을 보았으나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.	·공사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모바일을 통해 공사장 건축정보를 확인하고, 현장담당에게 문의할 수 있다.
복지	·휠체어를 이용하여 외출한 B씨는 인근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경사로가 없어 출입에 불편을 겪었다.	·미리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식당을 확인하고, 증강현실(AR)을 활용하여 건물 내부지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.
비즈니스 지원	·IT기업을 운영 중인 C씨는 건축정보를 활용하여 상권분석 관련 사업을 하고 싶지만,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.	·분산 관리되고 접근이 어려웠던 다양한 건축정보 중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받는다.

- 모바일로 건축물을 촬영하면 준공연도, 실내정보 등 다양한 건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마포구에서 시행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마포구청(구청장 유동균), 한국감정원(원장 김학규) 등 3개 기관은 「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(이하 '건축 정보 서비스)」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(MOU)」을 9월 27일 (금) 10시30분 마포구청사에서 체결한다.
-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토부와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, 정보통신기술(IT)과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.

- 해당 시범사업은 8월 22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‘건축 행정 서비스 혁신방안’ 후속조치로써, 마포구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를 구축하며, 공덕 사거리 인근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건축물 내부 평면도, 피난경로 등 추가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.



<마포구 특화거리 대상(안)>

-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,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.

* 제공정보: ① 인허가·위반 여부 등 현황정보 ② 노후도, 소방·가스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 ③ 공개공지 등 편의정보 ④ 업종·건축 가능규모 등 특화정보

- 한편,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스타트업 등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3D도면, 실내지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건축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며, 참여기업은 향후 별도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.

-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타분야 정보 융·복합을 통해 수익모델*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에도 개방할 계획이다.

* 예) 노후 건축물 정보와 리모델링/인테리어 업체와 연계하는 플랫폼앱 개발



AR화면상 건축물 선택



필요정보 선택



공사현장 정보제공

□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국토부·마포구·한국감정원은 ‘증강현실*(AR) 기반의 스마트 건축 정보 모바일서비스’ 시스템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

* 증강현실(Augmented Reality) : 현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

- ②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‘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(T/F)’을 구성 및 운영

□ 업무협약에 참석한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“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서비스 마련에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축정보의 수준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게 되었다.”고 평가하며,

- “특히, 이번 사업이 피난경로 안내, 건축물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고, 제공되는 정보는 민간에서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-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“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는 마포구민이 건축물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건축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”며,
- “제대로 된 건축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마포구민 누구나 손쉽게 마포구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대경 사무관(☎044-201-408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토부-마포구청-한국감정원 업무협약서

국토부, 마포구청, 한국감정원(이하 “각 기관”이라 한다)은 건축물의 생활편의 및 건축물 안전 정보 등을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(AR: Augmented Reality) 기반의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(기본방향) 각 기관은 건축정보와 모바일 특화 기술을 결합한 ‘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’를 개발하기 위하여 서로의 전문성과 정책을 존중하며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.
2. (협업내용 및 역할) ① 각 기관은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별 역할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.
 1. 국토부 :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위한 행정적·기술적 지원 등
 2. 마포구청 : 자체 보유 및 관리대상 건축물 정보 제공, 주요 정보 현행화, 성과 홍보 등
 3. 한국감정원 :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발 및 구현, 실태조사 등
- ② 개별 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각 사업별로 각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.

3. (T/F 구성·운영) ① 각 기관은 스마트 건축정보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“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위한 T/F(이하 “T/F”라 한다)”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 T/F의 원활한 논의와 기술적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.
4. (협약의 효력) 이 합의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상호 동의하에 업무협력의 종결 의사를 문서로서 통보하지 않는 한 협력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이 협약서는 당사자 간에 서명,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. 9. 27.

국토교통부
국토도시실장

마포구청
구청장

한국감정원
원장

안충환
(서명)

유동균
(서명)

김학규
(서명)
